

2만원 가격보고 들어갔다 5만원 '날벼락'

■ 미용실·음식점 등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혼란

'손님 낚는 도구' 전략 비난... 단속도 형식에 그쳐

#. 회사원 김모(27)씨는 최근 직장 근처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뒤 요금을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다. 미용실 외부에 게시된 '남성 파마 2만원'이라는 요금을 보고서 들어가 머리를 다듬었는데, 정작 종업원이 요구한 금액은 2배를 넘는 5만원이었다. 그는 "학원가가 물려있는 곳이라 요금이 싼 줄 알고 들어갔는데 5만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찔했다"고 말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옥외(屋外) 가격 표시제'가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말부터 업소 가격 안내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손님을 낚는 도구'로 전략한 것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옥외 가격표시제 대상(면적 66㎡·20평형)업체는 전체 4534개소 가운데 719곳(15.86%)인 이·미용업소, 일반·휴게음식점(1만849개소) 중 150㎡(45평형) 이상인 23%곳(12.99%) 등이다. 이들은 품목과 가격을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에 표시된 가격만 보고 업소에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미용업소의 경우 이계시된 가격과 다른 요금을 요구하는 업소가 적지 않은데다 이·미용 특성상 머리숱과 길이에 따라 2~3배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가가 밀집한 광주 동구 대의동 A미용실은 규정에 따라 '고객이 선호하는 5가지 품목'을 게시해야 하지만 4개만 표시, 이마저도 '펌 3만 원~'이라는 등 최저 가격만 표시돼 있다. '남성 펌 2만 원'이라는 옥외 가격표시와 달리 4만원을 요구하는 업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옥외 가격 표시제' 대상 업체가 아닌 영세한 업소까지도 제도를 악용, '남성성 광고'로 손님 유치 경쟁에 나서는 상황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옥외가격 표시제가 곁들면서 ▲규제 대상 업소가 전체의 10~15%로 극히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업체가 적고 ▲1년에 1차례인

형식적인 구경의 점검 및 허술한 단속 ▲경위서 제출 등 제재 수단도 미흡한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적발된 업소는 이·미용업소 5곳, 일반·휴게음식점도 6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구두 경고(개정조치 명령)에 그쳤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외부에 가격표만 제대로 붙었으나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표시된 요금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시와 함께 적용대상 업체 확인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지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적발 업소에 대해 첫 1회시 시정명령, 2회시 영업정지 7일, 3회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백가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달뜨기 14:06
해질 17:58 달지기 03:28

주말 눈썰매장 가볼까?

눈 또는 비가 내리다 아침에 그치겠으며 낮부터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광주 | 눈눈 | -2/4 |
| 목포 | 눈눈 | -2/3 |
| 여수 | 비눈 | 2/6 |
| 나주 | 눈눈 | -2/4 |
| 완도 | 눈눈 | 0/4 |
| 구례 | 눈눈 | -2/4 |
| 강진 | 눈눈 | 0/4 |
| 해남 | 눈눈 | 0/4 |
| 장성 | 눈눈 | -4/3 |

| | | |
|-----|----|------|
| 보성 | 눈눈 | -1/4 |
| 순천 | 눈눈 | 2/5 |
| 영광 | 눈눈 | -3/2 |
| 진도 | 눈눈 | 0/4 |
| 전주 | 눈눈 | -2/3 |
| 군산 | 눈눈 | -2/2 |
| 남원 | 눈눈 | -2/3 |
| 홍산도 | 구름 | 2/3 |



◇바다 날씨

| 지역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1.0~2.0 |
| 남해 앞바다 | 북서~북 | 1.0~2.5 | 북서~북 | 2.0~3.0 |
|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1.0~2.0 |
| 서부 앞바다(동) | 북서~북 | 1.0~2.5 | 북서~북 | 2.0~4.0 |
| 서부 앞바다(서) | 북서~북 | 1.0~2.5 | 북서~북 | 2.0~3.0 |

◇생활지수

| | |
|----|----|
| 동파 | 25 |
| 운동 | 30 |
| 빨래 | 50 |

◇물때

| 목포 | 밀물 | | 썰물 | |
|----|-------|-------|-------|-------|
| | 시각 | 수위 | 시각 | 수위 |
| | 10:50 | 03:18 | 22:54 | 16:28 |
| 여수 | 06:13 | 12:33 | 18:27 | 00:00 |

◇주간 날씨

| 31(토) | 2/1(일) | 2(월) | 3(화) | 4(수) | 5(목) | 6(금) |
|-------|--------|------|------|------|------|------|
| ☀ | ☀ | ☀ | ☀ | ☁ | ☀ | ☀ |
| -4/3 | -3/6 | -1/6 | -1/6 | -1/4 | -2/4 | -2/5 |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정략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정략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에게 5

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7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대법원은 "5천만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정략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작년 11월 13일 출소했다. /연합뉴스



나도 스마트폰 달인 29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폰 달인 되기'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셀카' 찍기와 사진 전송 방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자 불법유치 의료급여 30억 쟁긴 병원장 등 적발

광주경찰, 2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 30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S내과 병원장 조모(49)씨와 사무장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1년 2

월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인공신장투석(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연 뒤 혈액투석환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규 환자 40여 명을 부당하게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만성신부전증환자 35명에게 신규 환자를 데리고 오면 혈액투석치료에 대한 1회 분

인부담금 2만원(1개월 20여 만원)을 면제하고 별도의 소개비 4만~20만원을 지급해왔다. 한편, 곡성 등 시외에 거주하는 환자에게는 무상으로 이송 차량을 제공했다.

의료법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소개·유치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경찰은 최모(85)씨에게 210만원을 계좌

이체 하는 등 환자 35명에게 소개비 2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치료비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환자의 사정이 딱하고 병원을 계속 이용해 달라고 돈을 준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패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

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여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페논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던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생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china.co.kr
233-9582 (중)구오팔리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꽃 김서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휴파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